

# 경복궁의 풍수 지형과 풍수 요소에 관한 고찰

김규순\* · 박현규\*\*

## A Study on the Fengshui Topography and Fengshui Elements of Gyeongbokgung Palace

Kyoo Soon Kim\* · Heon Kyu Park\*\*

**요약 :** 경복궁의 지형을 논하는데 있어서 한양의 지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양의 지형과 경복궁의 지형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양천도와 경복궁 터를 선정하는데 정치·경제·지리적인 관점에서 선정되었지만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관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풍수적 관점에서도 형세론과 이기론으로 나누어진다. 형세론은 고려풍수의 색채가 강하였으므로 유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풍수, 즉 호순신의 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순신의 이론이 한양천도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사대부들의 경계와 선조의 지시로 조선 후기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슬법이 되었다. 이는 호순신의 법칙이 적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복궁의 지형을 풍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풍수적 고려에 의해 만들어진 풍수적 공간을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경복궁, 천도, 호순신(胡舜申), 풍수지형(風水地形), 지리신법(地理新法)

**Abstract :** Before commenting that geographical features of Gyeongbok Palace, we have to mention geographical features of Seoul Capital. Geographical features of Hanyang and Gyeongbok Palace are inseparable. Although moving the capital and Gyeongbok Palace were chosen for its political and economic merits, fengshui was also considered in depth. In fengshui, it's divided into 'theory of the situation' and 'lichi theory'. Though theory of the situation involves Goryeo's fengshui, it is assumed that new theory of Hu Shun Shen was used to build confucian nation. Even though Hu Shun Shen's theory had been useful to moving the capital, it lost its use as time goes by, due to the opposition forces and King SeonJo's will. This proves that his idea was unsuccessful. Key Words : Gyeongbokgung Palace, Moving of the capital, Hu Shun Shen (胡舜申), Fengshui Topography (風水地形), DiliXinfa (地理新法)

### I. 서론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은 서울에 있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덕수궁 등이다. 이들 궁궐이 가진 역사와 배경 그리고 지형적 입지가 다른 만큼 공간형성방법과 과정도 다르다. 조선시대에 입지선정과 공간형성 및 배치 방법은 그 당시의 자연관이나 유

교적 사유에 근거한다.

조선의 궁궐은 역사학·건축학·조경학·공간학·생태학·주거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경복궁의 공간 형성에 영향을 끼친 지리적 방법론을 사료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적 적용의 활용성과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양천도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풍수적 이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Research Fellow, The Northeast Asian Art Institute, cigoljang@hanmail.net)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hg62011@hanmail.net)

유에 근거하여 풍수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한양양도의 계획과 건설에 풍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조선의 궁궐은 조선의 풍수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조선 풍수의 기저에는 고려풍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양천도는 조선개국과 거의 동시에 진행된 역사적 사건이므로 궁궐의 입지와 공간의 배치에 조선의 국시인 유교철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풍수는 지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중국 양자강 남쪽의 풍수는 형세론을 중심으로 한 강서파이고, 양자강 북쪽의 풍수는 패절을 이용한 이기론을 사용하는 북건파로 나뉜다. 우리나라에 이기론이 도입한 이는 기록상으로는 하륜이다. 한양을 도읍지로 선정하는 데는 고려의 풍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고려풍수에 대한 실체를 알기는 어렵다. 고려풍수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의 풍수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한양을 수도로 결정하는 지형분석에 있어서 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 태조3년(1394)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는데 활약한 무학대사, 권중화, 조준, 정도전, 권근, 이직, 하륜 등등은 모두 고려의 교육을 받은 고려의 신하였다는 사실이 그 근거이다. 그들은 유학적 사상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이지만 고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다만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였고 깨달음을 통해 서방정토로 가려는 불교교리에 의거하면 묘지보다는 건축풍수에 강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궁궐은 조선 최고의 통치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조선의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고, 조선 최고의 문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며, 외국에 우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국가적인 문화콘텐츠의 보고가 되었다. 궁궐의 공간배치와 건축술은 조선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는 그대로 조선의 역사였다. 궁궐에 대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궁궐은 조선 최고의 문화 공간이다. 궁궐은 문화·관광 공간으로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임금이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덧붙여 궁궐이라는 공간에 숨겨진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면 더욱 매력을 느끼는 관광이 될 것이다. 조선의 가치는 동양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발달된 풍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선의 풍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면 정신적 문화의 우수한 단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복궁에 대한 풍수콘텐츠는 사료(史料)에 많이 담겨져 있으므로 사료의 재가공을 통하여 궁궐 문화에 대한 격조 높은 인문학적 요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양과 경복궁에 관하여 역사학이나 건축학, 조경학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수 있다. 풍수적으로 접근한 논문으로는 기후와 지형의 요소에 의해 왕궁터를 평가한 연구(옥한석, 2007)가 있으며, 궁궐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논문(박재희, 2017)이 있고, 경복궁의 풍수는 쟁에 대해서 풍수논리의 기준에서 풍수적 정답을 찾으려고 분석한 논문(박정혜, 2013)도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풍수지형에 따른 문화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II. 한양 도읍지의 선정과 지형

궁궐이 세워진 한양은 조선의 도읍지이다. 신라의 경주나 고려의 개성은 자연과 혈연 그리고 신화적인 연고가 있는 장소였지만, 한양은 조선왕조와 어떠한 연고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경제적·지리적·풍수적 요인으로 선정된 도읍지였다.

새로운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건설 그리고 도읍지 건설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개경은 이미 완성된 도읍지로서 불교사찰과 기득권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상에 맞는 새로운 공간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신흥사대부가 주축이 되어 건국한 조선은 불교 대신 유교를 국시로 내세웠으므로 이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개경은 이미 불교로 완성된 도시이므로 절대공간<sup>1)</sup>을 찾아 신도읍지 건설을 주도하고자 했다. 즉 고려의 기득권을 혁파하고자 정치적 의도에 의해 도읍지 천도를 기획한 것이다. 다만 개경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풍수적 지형이어야 한 것은 역성혁명을 이룬 국가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도읍지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이어서 왜의 침략에도 방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했고, 교통지리적 관점에서 고려의 조운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곡선이 기착할 수 있는 장소라야 했으며, 산의 능선이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곳이면서 평야가 가까워 경제 지리적으로 물산이 풍부한 곳이어야 했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하운(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서면·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sup>2)</sup>

(태조실록, 태조2년 계유(1393) 12월 11일(임오))

\* 밑줄은 필자가 표시.

하륜은 상소에서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가의 통치적 입장에서 편중되지 않는 지리적 입지를 중히 여겼다. 실제로 하륜의 국토의 중앙이라는 개념은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애매모호하다. 이러한 관념적인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이성계가 점지해 놓은 장소가 한양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A-1)“계룡산(鷄龍山) 현 북쪽 27리에 있다. 우리 태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이 계룡산 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친히 와서 순시하고 길지(吉地)를 택하여 대략 그 기지를 정하고는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가, 결국 조운(漕運)의 길이 멀다 하여 이를 그만두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곳을 신도(新都)라 부르고 있으며, 당시 구획하였던 개울과 주춧돌 등이 아직 남아 있다.”<sup>3)</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8권, 충청도)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A-2)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충경인들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이제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곳이다. 더욱이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이수도 고르니,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sup>4)</sup>

(태조실록, 태조3년 갑술(1394) 8월 13일(경진))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조선은 고려의 국가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A-1)에서 말하는 조운은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운송체제였다. 고려시대부터 한강의 조운체제가 운영되었는데, 한강을 벗어난 곳에 도읍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조운체제였다. 그 당시 조운체제란 대량운송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삼남의 세곡을 운반하는 데는 조운선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생산한 임산물과 농산물 그리고 경상도 북부지역의 세곡을

운송하기에 남한강은 중요한 운송로였다. 따라서 조운선이 다니지 않는 곳은 도읍지로서 불합리한 장소였다. 고려시대에 구축된 조운체제는 주로 해상을 위주로 발달하였으며 내륙에서 발달한 조운은 남한강이 유일하였다. 계룡산이 도읍지에서 탈락한 것은 바로 조운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하겠다. (A-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운체제가 새로운 도읍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지리적 입지를 만족하면서도 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즉, 풍수적으로 부합하는 장소를 찾아야 했다.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지로서 흡족하게 생각하였기에 천도의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거론되었던 지역인 만큼 한양은 쉽게 물망에 올랐다. 도선국사의 도참설<sup>5)</sup>과 목자득국설<sup>6)</sup>, 비결서에 의해 도읍지 이전을 위한 민심을 얻기도 쉬웠고, 관료들도 개경에서 멀지 않은 한양에 대해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 당시 기존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공간인 거주지는 이전하면 되지만, 조상들의 묘지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중추원 학사 이직(李穡)이 말하였다.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세우는 곳에 대하여 지리책을 상고해 보니, 대개 말하기를, ‘만갈래의 물과 천봉의 산이 한 곳으로 향한 큰 산과 큰 물이 있는 곳에 왕도와 궁궐을 정할 수 있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중략)... 우리나라 비결에도 이르기를, ‘삼각산 남쪽으로 하라.’ 했고 ‘한강에 임하라.’ 했으며, 또, ‘무산(毋山)이라.’ 했으니, 이곳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 터를 잡아서 도읍을 옮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로서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정할 것이 아니며, 반드시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를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전에 말하기를, ‘거북도 따르고 시초도 따르며 공경(公卿)과 사대부도 따르고 서민도 따라야 한다.’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읍을 옮기고 안 옮김은 때와 운수가 있는 것이니, 신이 어찌 쉽게 의논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도하려는 것은 천심에서 나오고 또 인심의 향하는 바를 살피시니, 곧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악의 명당은 신도 역시 좁다고 생각합니다.”<sup>7)</sup>

(태조실록, 태조 3년 갑술(1394) 8월 12일(기묘))

\* 밑줄은 필자가 표시.

한양지역을 도읍지로 정함에 있어서 무악과 백악이 거론되었다. 백악을 도읍지로 선정하는 풍수지리적 관점이 경복궁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준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양도성 영역이 결정되는 준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고려의 신하로써 개경에 거주하였고, 그들 조상들은 개경부근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경에서 거리상 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선호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지리적 관점은 풍수지리였는데, 풍수지리학은 근대지리학과는 그 관점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근대지리학은 합리적인 논리로 지형과 지리를 설명하고 검증하는 것이지만, 풍수지리학은 지형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에서 서로 다르다. 풍수는 그 자체로 자연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풍수에 불교의 종교적 교리를 적용하면 불교풍수가 되고, 유교적 사상을 입히면 유교풍수가 된다. 고려의 풍수가 불교의 색채를 띤 불교풍수라면, 조선은 불교의 사상적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국시인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도읍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정도전을 위시한 이들의 새로운 관점의 자연관과 인문관은 유교적 풍수관이었다. 한양은 북현무가 백악산, 좌청룡이 낙산, 우백호가 인왕산, 남주작이 남산으로 사신사(四神砂)가 구성되어 있다. 사신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지형을 풍수지형이라 한다. 사신사가 갖춘 땅이 길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자연지형은 능선과 개천 그리고 평지로 구분되는데, 산의 능선은 지역의 경계 역할을 하며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개천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교통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풍수지형이란 거시적으로는 정치지리적·경제지리적·교통지리적인 면에서 입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미시적으로 풍수해를 피할 수 있고 겨울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추위방지와 여름철에는 지형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미기후적 지형을 찾기 위함이다(옥한석, 2007).

“무릇 장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좌측 청룡이 되고 우측이 백호가 되며, 앞은 주작으로 하며 뒤를 현무로 삼

는다. 주산인 현무는 머리를 앞으로 숙인 모양이어야 하고, 주작은 부드러운면서 날렵한 모양이 좋고 청룡은 역동적이면서도 길게 뻗어있으면 좋고 백호는 웅크리면서 순한 모양이어야 한다. 각각의 형세가 이와 반대이면 파산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sup>8)</sup>

(김규순 역, 2011, 금낭경 사세편)

곽박의 금낭경 사세편을 보면,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북현무(北玄武)를 기본적인 풍수지형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방이 탁 트인 지역이 아니라 전후좌우가 산의 능선으로 둘러싸인 곳을 도읍지의 입지로 본 것이다. 사신사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양새를 묘사하고 있다.

“북쪽으로 화산(華山, 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漢水)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겹이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고르다. 북악(北岳)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더하고, 남봉(南峯)이 앞에 높이 솟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뱀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금성 천부(金城天府)로다. 8도가 관할 되고 겹으로 된 문(重門)에 막다기(柵)를 치네. 하늘이 만든 견고(堅固)함이로다. 한 물은 남쪽을 두르고, 세 산은 북쪽을 진압하였네. 중국의 번방(藩邦)이다.”<sup>9)</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

\* 밑줄은 필자가 표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에 한양의 지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북악과 남봉이 솟고 뱀과 용을 거론하는 것은 북현무·남주작·좌청룡·우백호 즉 사신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신사를 갖추고 있는 땅이 한양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도읍지로서 넓이가 갖추어져 있고, 한강변에 북쪽에 큰 산이 버티고 있으면서 남쪽에 강을 둔 지형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신사란 그 땅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사신사의 형태를 가지고 마을과 도읍지의 안정성을 분석한 것이 풍수적 관점이다. 사신사는 도시나 마을을 둘러싼 산의 능선으로 주거영역 밖으로부터 차폐하여 안정성을 갖추고 외적이 불의의 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 또한 겨울의 북풍한설이나 여름의 동남풍을 일차적으로 막아 바람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미기후의 발생으로 통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III. 경복궁의 공간적 특성

한양의 핵심적 공간은 경복궁이었다. 임금이 거주하면서 정사를 돌보는 최고의 정치적 공간이었으므로 전제군주 정치형태에서 궁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한양의 풍수와 경복궁의 풍수는 이런 면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양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형을 분석한 것이었다. 경복궁은 한양천도로 가장 먼저 지어진 정궁으로 1395년에 완공되었다. 태조 이성계부터 선조 때까지 정궁으로 사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270년이 지난 고종 때(1867년) 재건되었다.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 정도전·청성백 심덕부·참찬문하부사 김주·좌복야 남은·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태조 3년 갑술(1394) 9월 9일(신사))

태조 이성계는 1394년 9월 9일 정도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사직·궁궐·시장 등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이는 한양과 궁궐배치를 정도전이 진두지휘했다는 의미이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유교사상에 심취한 인물로 1383년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기획하였고(1388년), 이성계, 조준과 함께 병권을 장악(1391년)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되자(1392년) 남은, 조준과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지어 조선왕국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394년에는 한양 도읍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는 불교와 도교를 비판함과 동시에 유교의 실천덕목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으뜸의 학문임을 인식하고 유교를 국시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진력을 다한 인물이다.

경복궁은 조선의 국사인 유교사상을 재현하고자 노력한 공간으로, 정도전의 유교적 관점이 경복궁을 짓는데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의 유교적 성향은 경복궁의 여러 전각의 명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복궁은 풍수적 지형에서 말하는 길지(吉地)를 선택해야 했다. 풍수적 지형이란 기본적으로 사신사를 갖춘 장소를 말한다. 풍수지형에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축이다. 사신사란 하늘에 있던 별자리로 청룡, 백



그림 1. 「首善全圖(수선전도)」에 나타난 한양의 사신사  
\* 「首善全圖(수선전도)」(복사판 시중 구매)에 필자가 직접 사신사(四神使)의 위치를 표시.

호, 현무, 주작으로 구분되며 하늘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神)이다. 천손의 후예인 동이족은 하늘의 사신사를 무덤을 지키는 사신사로 활용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하늘의 사신사가 호위해주기를 희망했던 것이다.<sup>10)</sup>

궁궐의 후보지는 연희동과 인왕산자락 그리고 북악산 자락으로 압축되었다. 선정기준은 유교적 통치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악산 아래의 경복궁 자리가 가장 유교적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림 1과 같이 한양의 사신사는 북악산(北玄武), 남산(南朱雀), 타락산(左靑龍), 인왕산(右白虎)로 짜여져 있는 반면, 경복궁은 그림 2와같이 북현무(主山)의 북악산, 좌청룡의 정독도서관 능선, 우백호의 인왕산, 남주작(案山)의 황도마루, 조산(朝山)의 관악산으로 사신사가 형성되어 있다.

사신사가 둘러싼 한양도성 안에서 다시 개천과 낮은 능선으로 자연 경계로 만들어진 장소에 건축공간을 조성한 것이 경복궁이다. 즉 도성의 사신사와 궁궐의 사신사가 중첩되어 경복궁 풍수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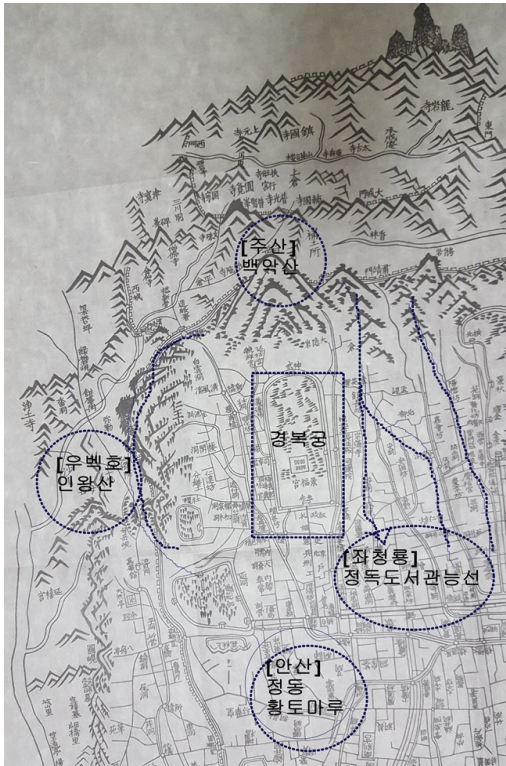


그림 2. 경복궁을 둘러싼 사신사

• 「首善全圖(수선전도)」(복사판 시중 구매)에 필자가 직접 사신사(四神使)의 위치를 표시.

북궁의 월대 주변에는 12지신을 설치하고 근정전 지붕에는 잡상으로 겹겹이 지키게 하여 12방향과 하늘까지 수호신을 대동하고 있었으니 최고통치자의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연희동은 삼각산의 중심축에서 벗어났으므로 유교사상을 구현하는데 지형적인 단점이 있어서 배제되었다. 한양 풍수지형의 기준점은 삼각산<sup>11)</sup>이었다. '삼각산의 신위와 백악산(白岳祠)로 뿔었는데 삼각산 신위는 남향 백악산 신위는 서향으로 두었다<sup>12)</sup>는 것은 삼각산을 왕기를 품은 산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왕은 남면하기 때문이다.

풍수지형은 산을 뒤편하고 물과 만나는 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았으므로 인왕산 자락은 궁궐을 동향으로 지어야 하는 지형이었다. 동향의 건축물은 불교의 아미타불이 서방정토(西方淨土)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형국이므로 불교가 선호하는 방향이다. 유교적인 남면(南

面)원칙은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방향이다. 남면의 원칙은 궁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남향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북방 온대지역에서 태양 에너지(solar energy)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최적의 방향이기도 했다. 남면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으로 조선의 국시는 유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다.

주산인 북악산이 가진 의미도 조선에게 안정맞춤이었다. 북악산은 목성체(木星體)이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산의 모양에 따라 오행으로 나누어 목성(木星)·화성(火星)·토성(土星)·금성(金星)·수성(水星)으로 부른다. 목성은 북악산과 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목자득국설(木子得國說)<sup>13)</sup>에 근거한 조선 임금을 상징하는 산이다. 목자(木子)는 이(李)씨의 파자(破字)이므로 목성은 조선의 임금을 상징하는 산으로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풍수지형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북악산은 풍수적 결점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복궁의 주산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르페브르의 공간정치는 공간생산에 있으며 공간은 공간을 지배하는 정치적 사상과 철학을 내포하기 마련이다(신승원, 2014). 이러한 통치방법이 풍수적인 개념과 교감하면서 장소선택과 공간생성이 이루어졌다. 장소의 선택이 결정되면 그 다음 적용되는 것이 풍수적인 응용이다. 풍수는 백성들과 소통하는 정치적 기제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선의 창업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그대들이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므로 그 본 바와 들은 바의 일을 말로 하여 아뢰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나, 그러나 지리의 논설을 배척함은 너무나 과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고 부모를 장사지낼 때에 모두 지리를 쓰고, 또 우리 태조·태종께서도 도읍을 건설하고 능침을 경영하심에 모두 지리를 쓰셨는데, 어찌 아뢴 말과 행한 것이 서로 다르냐. 이는 말과 행위가 틀린 것이다. 또 최양선(崔陽善)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임금에게 진술하였으니 충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일이지, 요망한 말과 괴상한 술법이라고 논하여 죄를 다스리려 함은 무슨 까닭이냐.”<sup>14)</sup>

(세종실록, 세종15년 계축(1433) 7월 26일(정축))

자연지형을 풍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신홍사대부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세종은 풍수적 접근은

당연한 것이며 사대부들도 자기의 집과 묘지를 선정할 때 풍수를 행하면서 임금 앞에서는 풍수를 배격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며 힐책하였다. 풍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서민까지 풍수를 믿고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경복궁의 풍수요소는 5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금천(禁川)이라 불리는 명당수이고, 둘째는 근정전 앞마당의 명당이며, 셋째는 강녕전·교태전이 가진 공간적 함의이고, 넷째 궁궐 안의 핵심적 풍수공간임을 증명하는 아미산(峨眉山), 다섯째, 연못 풍수로 만들어진 경회루와 향원정이다.

## 1. 명당수

금천은 광화문을 지나 홍례문과 근정문 사이를 흐르는 개천으로 왕의 공간과 피지배자의 공간을 구분한다. 강이나 개천은 땅의 영역을 경계 짓는 지형이다. 사찰에서 성스런 공간과 세속의 공간을 경계 지을 때 개천을 이용했다. 조계산 송광사의 삼청교, 속리산법주사의 속리교, 설악산신흥사의 극락교, 금강산건봉사의 능파교, 영축사통도사의 청류교 등등이 개천을 활용하여 성스러운 지역과 세속의 지역을 구분하였던 것과 개념을 같이 한다. 풍수에서는 이를 왕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금천(禁川)이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왕기가 가득한 공간이란 왕의 전용공간이라는 의미이다.

(B-1)이양달이 말하기를, “한양이 비록 명당(明堂)에 물이 없다고 말하나, 광통교(廣通橋) 이상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물이 사방으로 빙 둘러싸고 있으므로, 웬만큼 도읍할 만합니다. 이 땅은 규국(規局)에 합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읍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명당(明堂)이 아니고, 아래쪽에 명당이 있습니다.”<sup>15)</sup>

(태종실록, 태종 4년 갑신(1404) 10월 4일(임신))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B-2)경복궁(景福宮) 안에 개천(渠)을 파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복궁은 태조(太祖)가 창건하신 것이니, 마땅히 여기에 거처(居處)하는 자손에게 보여야 하겠는데, 상지(相地)하는 자가 말하기를, ‘명당수(明堂水)’가 없는 것이 흠(欠)이라.’ 하니, 개천을 개통하도

록 하라.”<sup>16)</sup>

(태종실록, 태종 11년 신묘(1411) 7월 30일(기축))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B-3)경복궁(景福宮) 성 서쪽 모퉁이를 파고 명당(明堂) 물을 금천(禁川)으로 끌어들이라고 명하였다.<sup>17)</sup>

(태종실록, 태종 11년 신묘(1411) 9월 5일(계해))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불행하게도 경복궁터 안에는 명당수가 없었는데(B-1), 태종은 명령을 내려 명당수가 흐르는 개천을 만들게 하였다(B-2). 금천은 인공적으로 만든 개천이다. 금천으로 흐르는 물은 백악산에서 발원하여 경복궁내를 거쳐 경회루를 지나는 물을 연결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하자 궁궐 밖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다(B-3). 물이 흐르지 않는 금천은 풍수적으로 의미가 없다. 물이 흐르는 금천은 삼각산의 정기가 백악산을 통하여 경복궁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백악산이 목성체이므로 목(木)기운을 품고 있으며 이와 상생하는 기운 즉 수(水)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기운이 바로 왕기이다. 왕기를 왕성하게 하고 왕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금천이다. 금천은 단순히 최고통치자와 피지배자의 영역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임금의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풍수 원리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금천(禁川) 그림 3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왕의 공간에 대한 경외하는 명칭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 정도 상에는 “근정전(勤政殿)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正殿)으



그림 3. 경복궁 금천

출처 : 2017년 11월 12일 필자 촬영.

로, 남쪽에는 근정문, 또 그 남쪽에는 홍례문, 동쪽에는 일화문(日華門), 서쪽에는 월화문(月華門)이 있다. 홍례문 안에는 개울이 있는데, 다리 이름은 금천교(錦川橋)<sup>18)</sup>이고, 동서에 수각(水閣)이 있다.”<sup>19)</sup>라고 하여 금천(禁川)이 아닌 금천(錦川)으로 적고 있다.

## 2. 명당 풍수

경복궁의 명당은 근정전 앞에 펼쳐진 마당이다. 명당이란 밝은 마당이다. 밝고 너른 마당은 햇빛의 직간접반사에 의한 조명효과와 기온을 높이는 태양 에너지의 혜택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신하를 거느리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명당에는 지형적 조건이 있는데, 왕기가 서린 땅이므로 왕의 상징인 북악산의 능선이 지나가야 하며 물을 만나서 왕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정전 앞의 명당은 백관들이 모여 왕의 명령을 받는 자리가 된다. 왕명은 천지에서 지엄한 것이며 왕명은 왕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이곳을 조정(朝廷)이라 한다. 대신들이 임금을 향해 조아리면서 서 있는 곳이 조정이며 명당이다. 이 공간에 조선의 최고 벼슬아치들이 모여들고 왕국을 호령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즉 공개적인 명당정치가 조선이 표방하는 정치였음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임금이 안승선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오늘 백악산에 올라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또 이양달과 최양선 등의 두 가지 말을 들으면서 여러 번 되풀이로 살펴보니, 보현봉의 산맥이 곧게 백악으로 들어왔으니 지금의 경복궁이 바로 명당이 되기는 하나, 그러나 승문원의 내맥도 역시 보통의 땅은 아닌데, 이제 이양달·고종안·정양 등이 명당이 아니라고 함은 승문원의 터가 낮고 미약하다는 것이 첫째이고, 산수가 좀 곧다는 것이 둘째이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남산이 높다는 것이 셋째이어서, 이런 것으로 흠을 잡으니, 그것을 풍수학하는 자를 시켜 지리서를 강구하여 그 이해되는 것을 논술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sup>20)</sup>

(세종실록, 세종15년 계축(1433) 7월 18일(기사))

세종 15년(1443) 7월에 최양선의 문제제기로 이양달과 명당논쟁이 시작된다. 최양선은 “경복궁의 북쪽 산이



그림 4. 경복궁 근정전 앞 조정마당

출처 : 2017년 11월 12일 필자 촬영.

주산(主山)이 아니라, 목멱산(木覓山)에 올라서 바라보면 향교동(鄕校洞)의 연한 줄기, 지금 승문원(承文院)의 자리가 실로 주산이 되는데, ...(중략)... 창덕궁을 승문원 자리로 옮기면 만대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세종에게 아뢰었다. 1443년 7월 18일 세종은 친히 영의정 황희를 위시하여 예조판서 신상(申尙)과 이양달(李陽達)·최양선 등을 데리고 백악산 중봉에 올라 삼각산의 내맥을 살펴보았다. 이에 세종은 경복궁이 명당임을 확인하였고 승문원의 내맥도 좋은 땅임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영의정 황희·예조 판서 신상·유후 김자지·전 대제학 하연·예문 제학 정인지 등은 경복궁이 명당자리에 있음을 결론을 짓고 세종에게 아뢰었다.

명당은 너그럽고 평평한 것으로 귀한 것을 삼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상보는 데는 먼저 얼굴을 보고, 땅을 상보는 데는 먼저 명당을 보는 것이니, 명당이 너그럽고 평평하면 천 년 동안 길하고 경사스럽다.’ 하였으니, 이는 곧 백악 명당을 이룬 것입니다.<sup>21)</sup>

(세종실록, 세종15년 계축(1433) 7월 29일(경진))

궁궐은 정치적 공간으로 백관이 모이는 조정(朝廷) 즉 명당마당(그림 4)을 확보해야 한다. 근정전 앞의 명당마당은 임금을 모시고 백관들이 모여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 조선 최고의 정치 공간 즉 정치 1번지였다. 경복궁 근정전과 같이 규모가 있는 명당마당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흔하지 않다.

### 3. 강녕전·교태전의 공간풍수

경복궁은 외전과 내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외전의 핵심은 근정전이고 내전의 핵심은 강녕전·교태전이다. 외전은 정치 공간이었고 내전은 일상생활 공간이었다. 강녕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은 궁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강녕전은 임금의, 교태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다. 강녕전은 임금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교태전은 자식 번창을 염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교태전의 태는 주역 64괘 중 지천태(地天泰)괘에서 따온 것이다. 하늘과 땅이 교유하여 만물을 낳고 성장시키는 뜻을 담고 있다. 임금이 강녕전에 기거하지만 왕비가 있는 교태전에 가서 잘 수도 있다. 용은 왕을 상징하므로 강녕전과 교태전에는 지붕위에 용마루가 없다. 용이 두 마리이면 서로 싸우므로 지붕위의 용마루는 없애버렸다. 건물 안에 왕(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물 명칭과 건물의 양식에까지 풍수의 원리를 담았다. 풍수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강녕전(康寧殿)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경」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오복(五福) 중에 셋째가 강녕(康寧)입니다. 대체로 임금이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아서 황극(皇極)을 세우게 되면, 능히 오복을 향유할 수 있으니, 강녕이란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려는 것입니다.<sup>22)</sup>

(태조실록, 태조 4년 을해(1395) 10월 7일(정유))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들어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지었다. 강녕전은 홍범구주에 기록된 오복 중 셋째 복인 강녕을 따서 명명하였다. 강녕전은 태조4년(1395)에 지었으나 교태전은 1440년에 세종께서 짓기를 명하였다.

건축형식으로 음양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면, 먼저 외전 건물의 기둥은 둥근기둥이고 내전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이다. 둥근모양은 하늘과 양기 그리고 정신공간을 의미하고, 사각기둥은 땅과 음기 그리고 속소를 의미한다. 둘째 강녕전과 교태전 사이에 양의문(兩儀門)이 있다. 양의란 음·양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즉 양의문은 음양이 서로 오가는 통로이다. 이 문을 통하여 왕조의 영원함을 기원했다. 셋째 강녕전 월대의 모양이 철(凸)자형이다. 철(凸)은 그 모양이 납근을

본 판 글자로 양을 나타낸다. 강녕전이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월대이다.

### 4. 아미사(峨嵋砂): 풍수지맥

경복궁의 아미사는 백악산의 지맥과 연결된 증거가 되므로 중요한 지형이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땅을 구해야 하는데 산의 정기는 능선을 따라서 전달되므로 이러한 능선을 일러 풍수지맥(風水地脈)이라 한다. 따라서 경복궁은 아미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전각들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고 있다.

아미사 그림 5는 백악산의 지맥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로는 백악산을 위시하여 보현봉과 삼각산의 기운을 전달받으며 아래로는 교태전·강녕전·근정전으로 지맥을 이어주고 있다. 왕을 상징하는 중요전각들을 배치하는 기준점이 아미사였다. 풍수적으로 산의 정기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미사는 삼각산의 정기가 교태전으로 전달하는 지맥으로 여겼던 곳이다. 삼각산의 정기란 왕기(王氣)를 의미했으므로 조선의 유구한 발전을 위해서 보전해야 할 지맥이었다. 풍수적 관점에서 어떤 길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능선이 위아래로 기복이 있는 지형(풍수에서는 태식 잉육(胎息孕育)의 과정이라 한다)으로 나타나다가 길지 바로 전에 형성된 지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언덕을 풍수용어로 잉(孕)이라 한다. 그 다음 교태전이 들어서는 터를 육(育)이라 한다. 육은 기른다는 의미이므로 대지의 풍성함으로 자손을 번창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길지의 역할은 풍성히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경복궁 아미사

출처 : 2017년 11월 12일 필자 촬영.

임금이 이르기를, “전각의 중수를 계획하고자 한다.”  
...(중략)...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옛터에다 조금 고쳐 짓기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민치상이 아뢰기를, “(C-1)교태전 뒤의 아미사(蛾眉砂)는 바로 하늘이 만든 것으로, 그 아래에 전각을 세운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헐고 옮겨 짓는다면 이미 천연적인 지형을 잃게 되고 또 사각(砂角)에 응하여 전각을 세우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하고, 이유원이 아뢰기를, “비록 평범한 여염집이라도 집터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야 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전각의 처소이겠습니까.”...(중략)...

하고, 민치상이 아뢰기를, “궁전의 터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풍수가(風水家)의 속설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하고, 이최응이 아뢰기를, “국초에 터를 잡은 데는 의의(意義)가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견해는 필시 오늘날 사람보다 나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중략)...

김병학이 아뢰기를, “실로 그렇습니다만, 아미사가 교태전 뒤에 있는 것은 본래 깊은 뜻이 있으므로 깎아버려서는 안 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C-2)아미사에서 근정전까지는 평소 척맥(脊脈)이 있었다.”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맥(地脈)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염의 집도 각별히 택하지 않는 적이 없는데, 더구나 이 궁전이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C-3)아미사가 인공적으로 만든 산인 줄 알았는데, 근래에 들으니 바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아미사를 이미 깎지 않기로 하였다면 교태전을 예전대로 짓게 될 것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습니다.”하고, 이유원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논의가 지극히 옳습니다.”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교태전 뒤뜰이 좁다고는 하지만 아미사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하고, 김병국이 아뢰기를, “이렇게 통촉해주시니 우러러 흠양하는 바입니다.”하고, 이최응이 아뢰기를, “연전에 궁궐을 짓던 때에 어느 하루도 지형을 보지 않은 날이 없었으니, 지금 만약 아미사를 깎아버린다면 모두가 우려하고 탄식할 것입니다.”<sup>23)</sup>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을해(1875) 3월 29일(병인) 맑음)

\* 밑줄과 괄호의 기호는 필자가 표시.

고종이 전각을 확대하여 지으려고 대신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민치상은 하늘이 만든 것이라 하여(C-1) 천연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고, 김병학과 이최응, 김병국은 아미사를 없애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종은 궁궐에 척맥이 있었음을 인지했고 자연적인 것임을 인정하여 아미사가 백악산 능선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C-2와 C-3). 시중에 아미사가 경회루 연못을 판 흙으로 아미사를 조성했다는 설이 있지만, 아미산이 인공적으로 만든 조산(造山)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다만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경회루의 흙으로 더욱 풍성하게 보완하여 비보했을 가능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아미사가 자연지형으로써 경복궁의 기준점이었다는 것은 풍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 5. 연못풍수

궁궐에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축자재가 화재에 약한 나무이므로 소방수(消防水)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고, 둘째 땅이 습하면 전각들의 기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이 액상화가 진행되어 전각을 지탱하지 못하고 꺼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한 작업이다.<sup>24)</sup>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주산의 정기는 물을 건너지 못하므로 인공적인 연못을 만든 것은 북악산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고 곧장 교태전으로 연결되게 하려는 인식에 근거한다. 둘째 경복궁을 둘러싼 백악산·인왕산·남산·좌측능선 모두 바위로 구성된 산이면서 험하다. 이런 산은 풍수적으로 살기를 머금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6. 경회루와 인왕산

출처 : 2017년 11월 12일 필자 촬영.

임금이 말하였다. “태조(太祖)가 처음에 경복궁(景福宮)을 지을 때 하운(河崙)이 상서(上書)하여 정지시키고 말하기를, ‘산(山)이 갇히고 물(水)이 마르니 왕(王)이 사로잡히고 족속(族屬)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形勢)가 좋지 않습니다.’고 하였으나, 태조가 짓던 전각(殿閣)과 낭무(廊廡)가 이미 갖추어졌고, 만약 중국의 사신(使臣)을 응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경회루(慶會樓)를 그 옆에 짓고, 따로 이곳에다 창덕궁(昌德宮)을 지었다.”<sup>25)</sup>

(태종실록, 태종14년 갑오(1414) 6월 28일(기사))

\* 밑줄은 필자가 표시.

태종은 인왕산의 바위가 드러나는 것을 살기로 보았고, 살기가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회루와 연못(그림 6)을 만들었다. 고종은 북악산의 바위를 살기로 보았으며, 살기를 막기 위해 향원정 연못을 만든 것이다. 그 근거는 오행의 상생원리(相生原理)를 적용하였다. 인왕산과 북악산은 화강암 덩어리이다. 둘은 오행의 금(金)으로 분류되며, 물은 오행의 수(水)로 분류되므로 금생수(金生水)의 원칙에 의해 ‘금이 수를 낳는다.’고 보았으며, 금이 수를 만들 경우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못은 금의 기운을 설기(洩氣)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IV. 호순신의 풍수이론과 경복궁

공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풍수원리를 활용한 사례는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그 사례가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많이 나타난다. 풍수원리는 장소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건축공간을 만드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풍수이론으로 지형의 형태를 중시하는 형세론(形勢論, 또는 형기론)과 방위를 중시하는 이기론(理氣論)이 있다. 이기론이란 방향으로 산과 물의 존재 여부로 길흉을 판단하지만, 형세론은 산과 물의 형태와 배치가 길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위에 언급한 경복궁의 다섯 가지 풍수요소는 모두 형세론적 관점에서 적용된 사례들이다. 형세론은 풍수가 태동하는 출발점이 된 이론으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고려시대의 불교적 풍수도 형세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음은 자명하다. 이 기론이 전해진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리신

법이 발간된 년도와 하륜이 지리신법을 활용한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고려말 조선초(14세기)에 호순신(胡舜申, 1091-1177)의 지리신법<sup>26)</sup>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오동기, 2011:51-52). 한양천도와 관련하여 하륜이 지리신법으로 신도안의 풍수를 분석한 것이 태조실록에 전한다. 고려의 불교적 색채가 강한 풍수를 배격하고, 유교적 풍수가 성숙되기 전에 대체할 풍수이론으로 호순신의 풍수이론을 도입된 것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한양을 도입지로 정하는데 풍수적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대장군(大將軍) 심효생(沈孝生)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役事)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하운(河崙)이 상언(上言)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운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서면·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臣)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風水) 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운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乾方)에서 오고 물은 손방(巽方)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宋)나라 호순신(胡舜臣)이 이른 바, ‘물이 장생(長生)을 파(破)하여 쇠패(衰敗)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sup>27)</sup>

(태조실록, 태조 2년 계유(1393) 12월 11일(임오))

\* 밑줄은 필자가 표시.

하륜은 호순신의 지리신법으로 신도안이 도입지로 적당하지 않음을 상소하였고 태조 이성계를 설득하여 도입지 건설을 중지시켰으며 한양을 도입지로 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호순신(胡舜申, 1091-1177)의 지리신법(地理新法)은 용(龍)이 진행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길룡(吉龍)과 흉룡(凶龍)을 판단하는 풍수이론이다. 계룡산의 땅은 호순신의 이론에 따르면 산이 건방에서 오면 금산(金山)으로 분류된다. 금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손방이라면 양(養)방 즉 길방이다. 이는 길방에서 물이 들어와야 하고 흉방으로 물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 호순신 이론이므로, 길방으로 물이 빠져나가니 흉지이다(표 1).

호순신이 사용한 대오행에 따르면, 자(子)·인(寅)·갑(甲)·진(辰)·손(巽)·신(申)·신(辛)·술(戌) 방에서 주산이 내려오면 수산(水山)이고, 을(乙)·병(丙)·

표 1. 호순신 이론을 적용한 구성과 포태법

| 구성 | 食狼 |    | 文曲 |    | 武曲 |    | 右弼 | 巨門 | 左輔 | 廉貞 |    | 破軍 | 祿存 |    |
|----|----|----|----|----|----|----|----|----|----|----|----|----|----|----|
| 포태 | 養  | 長生 | 沐浴 | 冠帶 | 臨官 | 帝旺 | 衰  |    |    | 病  | 死  | 墓  | 胞  | 胎  |
| 金山 | 진손 | 사병 | 오정 | 미곤 | 신경 | 유  | 신  | 술  | 건  | 해임 | 자계 | 축간 | 인갑 | 묘을 |
| 水山 | 미곤 | 신경 | 유신 | 술건 | 해임 | 자  | 계  | 축  | 간  | 인갑 | 묘을 | 진손 | 사병 | 오정 |
| 木山 | 술건 | 해임 | 자계 | 축간 | 인갑 | 묘  | 을  | 진  | 손  | 사병 | 오정 | 미곤 | 신경 | 유신 |
| 火山 | 축산 | 인간 | 묘을 | 진손 | 사병 | 오  | 정  | 미  | 곤  | 신경 | 유신 | 술건 | 해임 | 자계 |
| 길흉 | 길  | 길  | 흉  | 흉  | 길  | 길  | 길  | 길  | 길  | 흉  | 흉  | 흉  | 흉  | 흉  |

\* 水山은 土山과 포태가 동일함.

오(午)·임(壬) 방에서 주산이 오면 화산(火山), 간(艮)·묘(卯)·사(巳) 방에서 산이 오면 목산(木山)이며, 정(丁)·유(酉)·건(乾)·해(亥) 방에서 산이 오면 금산(金山), 미(未)·곤(坤)·경(庚)·계(癸)·축(丑) 방에서 산이 오면 토산(土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관(日官)이 고하기를, ‘송도의 터는 지기(地氣)가 오래 되어 쇠해 가고, 화산(華山)의 남쪽은 지세(地勢)가 좋고 모든 술법에 맞으니, 이곳에 나가서 새 도읍을 정하라.’ 하므로, 신 단(旦)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 종묘에 고유하여 10월 25일에 한양으로 천도한 것인데, 유사(有司)가 또 고하기를, ‘종묘는 선왕의 신령을 봉안하는 곳이요, 궁궐은 신민의 정사를 듣는 곳이니, 모두 안 지을 수 없는 것이라.’ 하므로, 유사에게 분부하여 이달 초4일에 기공하게 하였습니다.”<sup>28)</sup>

(태조실록, 태조3년 갑술(1394) 12월 3일(무진))

\* 밑줄은 필자가 표시.

태조 이성계는 왕도건설을 위한 토지신 고유문에서 송도의 터는 지기가 끝났기에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긴다고 하면서 이곳은 지세가 좋다고 한 것은 형세론에 적합하다는 의미이고 모든 술법에 적합하다고 한 것은 풍수의 이기론 즉 호순신의 이론에도 적합하였다는 의미이다.

호순신의 이론이 한양의 풍수와 경복궁터의 선정과정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호순신의 이론을 한양과 경복궁에 대입하여 보면 그 결과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다.

(D-1)권중화 등은 전조 숙왕(肅王) 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亥方)

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壬座丙向)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坎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sup>29)</sup>

(태조실록, 태조 3년 갑술(1394) 9월 9일(신사))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D-2)풍수학 훈도(風水學訓導) 최연원(崔演元)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백악산(白岳山)의 명당(明堂)은 배임향병(背壬向丙)이며 궁궐(宮闕)은 자좌 오향(子坐午向)입니다.”<sup>30)</sup>

(세조실록, 세조 10년 갑신(1464) 9월 7일(정사))

\* 밑줄과 문단 앞 기호는 필자가 표시.

세조실록에 풍수학 훈도가 백악산의 명당은 임좌병향이고(D-1) 궁궐은 오향(午向)이라고 하였다(D-2). 우리가 자오선(子午線)이라고 하듯이 자(子)는 정북을, 오(午)는 정남을 뜻하므로 궁궐은 정남향으로 지었다. 명당의 지형과 궁궐은 15도 틀어진 상태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의하면, (D-1)의 경우, 임(壬)방의 산은 화산(또는 화국)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손방으로 문곡이다. 문곡은 흥방이니 물이 흥방으로 빠져나가니 백악산의 명당은 길지이다. 궁궐을 자좌오향으로 놓은 것은 화산(또는 화국)에서 오향은 무곡이니 길방이다. 표 1의 호순신 이론에 적용한 구성과 포태법을 대입하면 길흉을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백악산의 명당과 궁궐의 방향이 길지와 길향이니 원하는 바였다. 남면은 불변 사항이었으므로, 경복궁 터는 한양도성 안에서 남면할 수 있는 길지이어야 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방법론에서 호순신의 지리

신법이 유용하게 활용된 것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길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맞는 땅을 궁궐터로 선정했을 수도 있다는 발상이다.<sup>31)</sup> 세종조의 명당논쟁에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형세론적 관점에서 지형의 분석이 서로 상이하여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리신법은 방위에 관한 이론이어서 수학공식처럼 정답이 나오는 것이었으니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었다. 한양을 도읍지로 변경하는데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이용했다. 반면에 한양 도읍지 내에서 궁궐지를 정하는데 지리신법은 그다지 활약을 하지 못하였다. 연희궁과 무악산 명당 그리고 백악산 명당을 각기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호순신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호순신은 궁궐지 선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세론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호순신(胡舜申)의 설은 중국에서 이미 혁파하였다 하고 나도 이미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sup>32)</sup>

(선조실록, 선조 33년 경자(1600) 11월 9일(기유))

백사 이항복이 풍수사들과 함께 의인왕후(1555-1600)<sup>33)</sup>의 능을 선정하기 위해 건원릉 주변을 둘러보고 선조에게 아뢰는 과정에서 선조가 명나라에서는 호순신을 사용하지 않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호순신의 이론이 조선전기에는 풍수술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조 이후부터는 술법 사용을 경계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명나라 풍수사가 들어오자 선조가 “중국에서 준용하는 지리서(地理書)는 어떤 것이고 호순신(胡舜申)의 책도 사용하는가를 물어보라”<sup>34)</sup>고 한 적이 있고, 정구(鄭逵, 1543-1620)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멸만경(滅蠻經)<sup>35)</sup>이라고 칭했던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정조 때에도 잡과의 풍수시험과목으로 존재했으니<sup>36)</sup> 명맥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정오행과 충돌하는 지리신법의 대오행에 대해 불신이 있었던 것<sup>37)</sup>으로 보인다.

## V. 결론

경복궁의 풍수적 적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양에

대한 풍수적 결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복궁은 한양이라는 왕도 안에 배치되는 궁궐이므로 한양풍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양풍수는 곧 조선풍수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양 천도에 적용된 풍수기준과 경복궁을 배치하는데 활용한 풍수술은 조선풍수의 시작임과 동시에 준거가 되었다.

도읍지의 천도는 정치적인 판단이다. 정치적 결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후에 경제지리적 판단이 뒤따르며, 그 다음이 풍수적인 판단이 적용되었다. 도읍지 천도가 태조 이성계에 의해 선언된 것은 이성계 단독으로 돌발적인 선언이었다. 이 때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를 마음으로 굳힌 것으로 보인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1392년 7월 17일 등극을 하고, 그해 8월 13일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한양(漢陽)천도를 명령을 하였다. 1393년 1월 2일 권중화의 추천으로 계룡산에 도읍지를 정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의 왕권이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의 계룡산을 방문하고 궁궐건설 잔업을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2월 11일 하륜의 상소에 의해 계룡산 신도안의 궁궐건설은 중지된다. 이후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지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운체계가 완비된 한강을 끼고 있는 한양이 조운체계가 없는 금강의 신도안에 비해 도읍지로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양이 도읍지로 선정되는데 정치지리적·경제지리적 판단이 우선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신도안에서 한양으로 의사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궁궐의 터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인왕산 명당과 백악산 명당이 후보지로 떠올랐을 때 호순신의 이론으로 접근한 내용을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호순신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는 있다. 인왕산은 유방(西方)에 있으니 금산 또는 금국이다. 물은 진손방 즉 길방(吉方)으로 물이 빠지고 있으니 흉한 장소이다. 따라서 무학대사가 천거한 무악산 명당은 호순신의 이론에 따르면 흉한 땅이라는 결론이다. 태조실록에는 무학대사가 대신들과 의논하여 궁궐터를 잡으라고 하고 있으며, 정도전이 왕은 남면해야 한다는 원리로 백악산 명당에 경복궁터를 잡았다. 왕이 남면하는 땅이면서 길지로 부합하는 땅이 백악산 명당이었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에서 주희의 풍수적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순신의 이기론이 활용된 것은 의아한 면이 없지 않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송나라 황제인 영종(寧宗)에게 올린 상소문인 산릉의장(山陵議狀)에서 나타난 그의 풍수관은 형세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때, 하륜이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들고 나온 것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한 묘안이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풍수는 형세풍수가 강하였다. 따라서 형세풍수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했으므로 신흥사대부는 불교풍수를 무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풍수서적이 고려시대의 풍수서적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려의 풍수서적이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불교적 성향이 강한 형세풍수를 배격하고자 개국공신들에 의해 도입된 호순신의 이론은 새로운 유교 국가를 건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기제였다고 할 수 있다.

## 註

- 1) 르페브르가 주장한 개념으로 절대공간은 자연공간을 의미한다.
- 2) 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재호 역, 1972.
- 3)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임창재 역, 1970.
- 4) 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태일 역, 1972.
- 5) 태조실록, 태조 2년 계유(1393) 9월 6일(무신). “서운관(書雲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도선(道詵)이 말하되, ‘송도(松都)는 5백 년 터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4백 80년 터이며, 더구나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라.’ 하는데, 지금 바야흐로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키고 있사오니, 새 도읍을 조성(造成)하기 전에 좋은 방위로 이행(移幸) 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이재호 역, 1972).
- 6) 종묘의례 제3책 악장. “당시에 민간에는 또 ‘목자가 나라를 얻으리. [木子得國]’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회군할 때에 군중에서 모두 이 노래를 불렀다.” (한국고전종합DB, 선종순 역, 2008).
- 7) 한국고전종합DB, 권태익 역, 1972.
- 8) 錦囊經 第5四勢篇 “夫葬以左爲青龍右爲白虎前爲朱雀後爲玄武 玄武垂頭朱雀翔舞青龍蜿蜒白虎蹲踞形勢反此法當破死”
- 9)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김용국 역, 1969.
- 10) 사신(四神)은 고대신앙에 근거를 둔다. 고구려의 고분에서 사신사 벽화가 발굴되었는데, 천손족이 죽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신이 땅에 내려와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은 하늘과 땅이 상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11) 태종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6월 6일(경인). 上因曰: “讖僞之書, 予不信久矣. 王氏, 李氏之間, 有木子之言, 有三角之南, 眼見三池之說, 人皆信之.” (“참위(讖緯)의 서(書)를 내가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왕씨(王氏) · 이씨(李氏)의 사이에 목자(木子)란 말이 있었고, 삼각산(三角山)의 남쪽에서 눈으로 삼지(三池)를 본다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모두 믿었다.”) (한국고전종합DB, 이해철 역, 1977).
- 12)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갑오(1414) 7월 25일(병신). “移三角山神位于白岳祠, 配以白岳之神. 三角向南, 白岳向西.” (“삼각산(三角山) 신위(神位)를 백악사(白岳祠)에 옮겨 백악의 신과 짝지었는데, 삼각의 신은 남쪽으로 향하고 백악의 신은 서쪽으로 향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김구진 역, 1977).
- 13) 목자득국설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고려의 이자겸이었으며, 그는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다.
- 14) 上曰: “爾等居言官, 以其所見所聞之事陳啓, 予甚嘉之. 雖然排地理之說, 無奈太過乎? 世人於營室葬親之際, 咸用地理, 且我太祖, 太宗於建都營陵, 皆用地理, 何所啓之言, 異於所行乎? 是則言與行違, 且崔揚善以其所業陳於君, 謂之忠懇則可也, 以妖言怪術爲論, 而欲治其罪, 何也?” (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오돈 역, 1980).
- 15) 陽達曰: “漢陽雖曰明堂無水, 自廣通橋以上有水流焉. 前面有水, 四方回抱, 稍可爲都. 此地則未合規局, 然欲都之, 則此非明堂, 下有明堂.” (한국고전종합DB, 김구진 역, 1974).
- 16) 命開渠于景福宮中. 上曰: “景福宮, 太祖所創也, 宜居于此, 以示子孫. 相地者曰: ‘所欠者, 明堂水也.’ 其令開渠” (한국고전종합DB, 이식 역, 1976).

- 17) “命鑿景福宮城西隅，引入明堂水于禁川.”(한국고전종합DB, 이식 역, 1976).
- 18) 금할 금(禁)자는 피지배자의 관점이고 비단 금(錦)자는 최고통치자의 관점이다.
- 19)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김달진 역, 1969.
- 20) 上引見安崇善曰:“今日登白嶽，良久看望，又聽李陽達、崔揚善等二論，反復看望，普賢峯之山脈，直入白嶽，今之景福宮，止爲明堂，然承文院來脈，亦非常處，今李陽達、高仲安、鄭秩等非之，以爲承文院之基低微，一也；山水稍直，二也；朝對南山高，三也，以此爲咎，其令風水學，講究地理書，論其利害以啓.”(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오돈 역, 1980).
- 21) “明堂以寬平爲貴，是故古語云:“相人先看面上，相地先看明堂，明堂寬平，千年吉慶.”是則白嶽明堂之謂也”(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오돈 역, 1980).
- 22) “其康寧殿曰:《洪範》九五福，三曰康寧，蓋人君正心修德，以建皇極，則能享五福，康寧乃五福之一，舉其中以該其餘也”(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태일 역, 1972).
- 23)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 역, 1996.
- 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정도 상, “하륜(河崙)의 기문(記文)에, “전하의 13년 봄 2월에, 경복궁 제거사(提舉司)가 ‘그 후전(後殿)의 서쪽 누각이 기울어져 위험하다.’고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니, 전하께서 놀라 탄식하기를, ‘경복궁은 나의 선고(先考)께서 처음 창업하실 때에 세운 것인데, 지금 벌써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드디어 거동하여 보시고, ...(중략)... 차창 등이 땅을 측량하여 약간 서쪽으로 옮기고, 그 터에 제도를 조금 넓혀 새롭게 만들고, 또 그 지대가 습한 것을 염려하여 누각 둘레에 못을 만들었습니다. 공사를 마치자, 다시 거동하시어 그 누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옛 모습 그대로 수리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옛날의 제도보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셨습니다. 차창 등이 었드려 대답하기를, ‘신 등은 후일에 또 기울어져 위태로울까 염려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종친(宗親)·공신(功臣)·원로(元老)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고, 누의 이름을 ‘경회’라 하였습니다.”(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김달진 역, 1969).
- 25) 上曰:“太祖初營景福宮，河崙上書止之曰:‘山囚水渴，虜王滅族，形勢不善.’然太祖所營殿角〔殿閣〕廊廡已具，若有上國使臣應接之事，則必於是處，故予又建慶會樓于其側，別建昌德宮於此，比來別無災厄.”(한국고전종합DB, 이창교 역, 1977).
- 26) 지리신법 오행론(五行論), “子寅甲辰巽申辛戌 水, 乙丙午壬 火, 艮卯巳 木, 丁酉乾亥 金, 未坤庚癸丑土, 此名大五行 蓋五行之變體也”
- 27) “遣大將軍沈孝生如雞龍山，罷新都之役，京畿左右道都觀察使河崙上言:“都邑宜在國中，雞龍山地偏於南，與東西北面相阻，且臣嘗葬臣父，粗聞風水諸書，今聞雞龍之地，山自乾來，水流巽去，是宋朝胡舜臣所謂水破長生衰敗立至之地，不宜建都.”(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재호 역, 1972).
- 28) “왕도공사의 시작에 앞서 황천후토와 산천의 신에게 고한 고유문”(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권태일 역, 1972).
- 29) 한국고전종합DB, 권태일 역, 1972.
- 30) “風水學訓導崔演元等上言曰: 白岳明堂背壬向丙，而宮闕則子坐午向”(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채희순 역, 1979).
- 31) 조선후기에 도입되긴 했지만 다른 이기론을 대입하면, 조정동(趙廷棟, 1696-1785) 지리오결에 따르면 경복궁을 분석해보면, 오향(午向)이 아니라 곤신향(坤申向)이나 손사향(巽巳向)으로 지어야 한다. 이기론 마다 방법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 32) “答曰，胡舜申之法，天朝已爲革罷云，前日予已令勿爲舉論.”(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김성환 역, 1988).
- 33) 선조실록, 선조 33년 경자(1600) 6월 27일(무술), “申時，中宮朴氏薨.”
- 34) 선조실록, 선조 27년 갑오(1594) 5월 23일(경자), “且問中國遵用地理何書，胡舜申之書，亦用之乎?”(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이승창 역, 1987).
- 35) 선조실록, 선조 33년 경자(1600) 9월 4일(갑진), “故與胡舜申五行書之類，謂之《滅蠻徑》言，緣此而有蠻夷滅亡之禍也.”(한국고전종합DB, 김재열 역, 1988).
- 36) 정조실록, 정조 15년 신해(1791) 10월 27일(무진), “試取地理學，以錦囊經明山論試取.”(한국고

전종합DB, 권정안 역, 1993).

- 37) 선조실록, 선조 33년 경자(1600) 11월 9일(기유), “第其中第五岡, 朴尙義以爲: ‘三岡之中, 形勢當爲第一, 而酉金之山, 水破於乙地, 以胡舜申之說觀之, 則乙爲火也.’ 金汝堅所論, 似或有邪說云者, 蓋慮有如子羽之說也. 術官則皆以爲, 以天地正位論之, 則乙元屬木, 而胡舜申獨以從子爲火, 其勢不旺, 與酉金自不相妨, 而況舜申亦不言酉金乙火之忌.” (“다만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산등성이는 박상의(朴尙義)의 말에 의하면 세 산등성이 가운데 형세가 제일이고 유금(酉金)의 산에 을지(乙地)의 수파(水破)가 되는데, 호순신(胡舜申)의 설로 본다면 을(乙)은 화(火)라 하였습니다. 김여견(金汝堅)이 논한바 혹 사설(邪說)이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은 대개 박자우(朴子羽)의 말과 같은 것이 있을 까 염려한 것입니다. 술관(術官)들은 모두 천지의 정위(正位)로 논한다면, 을(乙)은 원래 목(木)에 속하는데 호순신은 홀로 자(子)를 좇아 화(火)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 형세가 왕성하지 못하니 유금과 서로 거리낄 것이 없다. 더구나 호순신도 유금(酉金)과 을화(乙火)의 꺼림을 말하지 않았고 자우가 말한 바는 유추(類推)하여 말을 지어낸 것인데 전에 이미 파혹(破惑)하였으니 구기(拘忌)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김성환 역, 1988).

\* 밑줄은 필자가 표시.

## 참고문헌

- 김규순 역, 2011, 「청오경·금낭경」, 서울: 서울동인학회.  
김두규 역해, 2001, 「호순신의 지리신법」, 서울: 장락.  
김연호, 2008, “조선초 천도 논의에 관한 고찰: 「지리신법」 적용에 의한 재조명,” 민족문화논총, 39, 579-607.  
김영모·최기수, 1998, “조선시대 궁궐공간의 관념적 구성

- 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4), 141-157.  
박정해, 2013, “경복궁의 입지환경에 대한 풍수적 논의와 해석,” 향토서울, 83, 201-236.  
신승원, 2014,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이론과 공간정치,” 도시인문학연구, 6(1), 63-98.  
오동기, 2011, “호순신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연구,” 문화재, 44(3), 44-61.  
육한석, 2007, “서울의 기후·지형 요소와 경관풍수에 의한 왕궁터의 평가,” 문화역사지리, 19(1), 78-90.  
정우진·심우경, 2012, “경복궁 아미산의 조영과 조산설(造山說)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72-89.  
최성길 역, 1990, 「조선의 풍수」, 서울: 민음사.  
홍석주·박언곤, 1999, “조선초 궁궐 위계에 따른 배치계획 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11), 145-152.  
「首善全圖(수선전도)」.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http://db.itkc.or.kr>

교신 : 박현규,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phg62011@hanmail.net)

Correspondence : Heon Kyu Park, 24341,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phg62011@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2018년 7월 31일  
투고확정일: 2018년 8월 9일